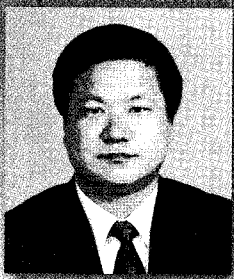


Mistletoe

#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땅에 뿌리를 박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흡근(吸根)으로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뿌리를 박아 살아가는 기생목으로서 엽록소를 가진 상록관목이다.

모든 나무들이 낙엽진 겨울에도 홀로 푸름을 유지하고 있어 신성시되고 있다. 더욱이 잔가지가 Y자로 계속 갈라져 그 끝에 육질의 얇아 프로펠러처럼 역시 Y자로 붙어 있으며, 겨울에 투명한 노란색에 가까운 콩같이 둥근 열매가 달리는 것이 특이한 모양을 했음인지 많은 민속과 전설을 낳았다. 겨우살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널리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살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야도리기(寄生木), 중국에서도 기생목 또는 동청(冬靑), 상기생(桑寄生) 등으로 부르며 라틴어로는 Viscum, 불란서 말로는 gui, 프랑스어로는 mistel이라 하여 모두 신비한 식물로 취급하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학명: 겨우살이대
- ▶ 라틴: *Viscum album* var. *cabretum*
- ▶ 영문: Mistletoe
- ▶ 산학: 국립산림과학원

## 1. 생태적 특성

겨우살이는 대개 참나무류, 팽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뽕나무,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에 기생하며 드물게 전남 거문도(巨文島)에서는 동백나무에도 기생하고 있다. 겨우살이는 위쪽의 줄기나 가지에 붙어서 기생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등지같이 등글게 자라고 수관 폭이 1m에 달하며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 2. 형태적 특성

가지가 두 갈래로 계속 갈라지고 끝에 두개의 잎이 마주난다. 가지는 둥글고 황녹색으로 씨 마디 사이가 3~6cm이다. 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3~6cm, 넓이 6~12mm로 앞뒤가 똑같고 짙은 녹색으로 두꺼우며 물기가 많고 윤채가 없다. 꽃은 자웅2가화로 이른 봄 가지 끝에 연노란색의 작은 꽃이 핀다. 열매는 공 모양이고 익으면 연 노란색으로 반투명체가 되며 속에 끈적끈적한 진을 지니고 있어서 새들에 의해 다른 나무로 옮겨진다.

유사종으로 열매가 적색으로 성숙하는 것을 붉은겨우살이(for. rubroaurantiacum Ohwi)라고 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일반적으로 산에 오르면 참나무나 그 외 팽나무들의 높은 가지 끝에 겨우살이가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비로운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눈높이나 그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겨우살이가 붙어 자란다면 매우 특이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조성되고 있는 학교 숲이나 도심 소공원에 식재한다면 매우 인기있는 관상수가 될 것이다.

## 4. 번식법

필자가 광릉수목원(현재는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할 때 겨우살이를 눈높이에서 키워보고자 꺾을 사육하는 분을 찾아가 겨우살이종자를 먹여서 꺾 통을 모아와 참나무에 칼로 홈을 파고 형성층 부위에 붙여보기도 하고 직접 새를 구입해서 키우면서 여러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 그루도 성공하지를 못한 기억이 있어 재배법은 현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5. 그 밖의 용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약으로 임신불능, 동상, 기침, 기관지염, 소변불통, 요통, 월경통 등에 쓰였다. 20여년 전쯤 미국의 생화학자가 우리 산림과학원에 오셔서 한국의 겨우살이로 암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중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겨우살이 시료를 달라하여 광릉수목원과 내장산에서 채취된 것을 보내드린적이 있는데 광릉수목원의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소식만 듣고 그 이후는 알 수가 없었다. 🌲

